손님 쫓는? CCTV

광주 도심 주정차 단속 75대 설치 가동
상가들 "장사도 안되는데…" 철거 호소

광주 도심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는 주변 상인들에게 약(藥)일까, 독(毒)일까?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에 대한 실효성을 놓고 일선 구청과 상인들 사이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광주시 북구 전남대학교 정문 앞 상인 62명은 지난 14일 전남대 정문 인근 도로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철거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는 민원을 북구청에 제기했다. 구청 측이 지난해 11월 초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하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민원을 통해 "이 도로의 경우 교통체증이 심한 구간도 아닌데, CCTV를 설치한 것은 본래의 목적과 맞지 않다"며 "CCTV로 인해 단속에 적발된 손님들의 항의는 물론 계속된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구 문흥동 S마트 인근 상인 주민 30명도 지난 8월 초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옮겨 달라는 민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다. 해당 구청 측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자 인권위를 찾은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CCTV와 교통표지판, 신호등이 한데 섞여 간판을 가린다며 상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S마트 앞 도로에 설치된 CCTV는 기존 위치에서 50m 가량 앞으로 이동됐다.

하지만 구청 측은 교통 흐름과 불법 주정차 현황 등을 검토해 CCTV를 설치한 만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북구 관계자는 "장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인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원활한 교통 흐름 등을 위해 설치된 CCTV를 이동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광주 도심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대수는 동구 5대(이동식 2대) ▲서구 28대(〃 3대) ▲남구 8대(〃 1대) ▲북구 23대(〃 2대) ▲광산구 11대(〃 2대) 등 모두 75대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다함께 더 높이 광주시 생활체육협의회는 15~16일 상무시민공원에서 '제20회 광주시장기 생활체육한마음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3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 게이트볼 등 20개 종목에 걸쳐 기량을 겨뤘다. 15일 각 구 대표로 출전한 선수들이 단체 줄넘기를 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남구청 '동과' 산업화 길 열었다

30t 재배 음료·친환경 비누업체에 매각…비누제조 특허 출원도

광주시 남구청이 '효사랑 녹색문화 산업전' 에서 재배했던 동과(冬瓜)를 건강 음료 및 친환경비누 제조업체에 매각해 산업화의 길을 열었다.

남구청은 지난 14일과 17일 비누제조업체인 평태산업과 한국식품연구원, 음료제조업체인 CSF 등과 동과 가공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을 위해 재배했던 동과 30t을 매각했다.

매각된 동과 30t 중 10t은 아토피에 특효인 친환경비누로 생산되며, 나머지 20t은 건강 음료로 개발돼 시중에 판매될 예정이다.

남구청은 동과로 음료수나 비누를 만들어 시중에 판매할 경우 약 4억~5억원 가량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남구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국식품연구원과 함께 동과 비누 제작기술을 개발, 특허 출원을 앞두고 있어 향후 원천기술이 확보되면 상당한 로열티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과 식물인 동과는 섬유질, 단백질, 당분, 칼슘, 인, 철, 카로틴, 비타민 등 다량의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당뇨와 부종, 간장질환, 이뇨작용, 대·소장 운동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동과의 제조와 유통망을 확보해 산업화 길을 열게 됐다"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낮은 생산비용으로 2~3배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남구청은 농촌을 살리고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난달 1~7일 '효사랑 녹색문화 산업전'을 개최했으며, 동과와 콩을 각각 40t, 8t을 수확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광주지역 초등교 68% 성적 공개

시교육청 지침 어겨

광주지역 초등학교 10곳 중 7곳은 지침을 어기고 성적을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이 장휘국 시교육위원에 제출한 '초등 교육과정 평가 현황(10월말 현재)'에 따르면 전체 140개교의 67.9%인 95개교가 성적을 공개했다. 제7차 초등 교육과정 지침에는 평균이나 등수 등을 기재한 개인 성적으로 학부모나 학생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적을 공개한 곳 중 91개교는 지침을 의식해 개인별 점수와 등수 등을 구두로 알려줬으며, 개인별 점수와 평균을 나눠준 학교가 4곳이었다.

선다형 일제고사 방식의 중간고사를 실시 중인 곳은 전체의 84.3%인 118개교였고, 기말고사는 단 한 곳을 제외한 139곳이 실시했다.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월말고사까지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46개교(32.9%)는 외부 업체에서 문제지를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영어방송 본부장 공채

광주영어방송재단(이사장 박광태 광주시장)이 광주영어방송(GFN) 방송본부장을 공개 채용한다.

광주시는 16일 "광주영어방송을 세계와 지역민을 향한 열린 채널로 이끌어 나갈 열정과 역량을 갖춘 방송본부장을 공개 채용하기 위해 오는 24일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방송본부장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통해 방송에 대한 전문지식과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 최종합격자를 선발해 다음달 임용할 계획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김장철 김치·젓갈류 특별 위생 지도점검

광주시 내달 5일까지

광주시는 김장철을 맞아 2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김치류와 젓갈류, 고춧가루 등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특별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15개반(48명)을 편성해 ▲무허가(무신고)제조·가공 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및 제품 판매행위 ▲보존 및 보관기준 적정 여부, 위생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적발된 위반업소는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시 5개반 16명 AI 방역상황실 설치

광주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방지하고 유사시 신속한 차단방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예찰과 대응을 전담할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13일 AI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로 발령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5개반 16명으로 구성된 AI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보건환경연구원과 자치구 등 방역 관련 기관과 비상 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키로 했다. 또 조기 발견을 위해 농가별 예찰담당자를 지정해 닭·오리의 질병 감염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는 자치구별로 구성된 12개의 공동방제단으로 하여금 방역소독을 지원토록 하고 소독의무 규정을 위반한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AI 신고전화는 1588-4060. /정후식기자 who@